



제12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도내 고교생, 미래 영화인의 꿈 키운다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서 전북청소년 영화캠프 열려

제12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영상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전북청소년영화제의 기획 행사다. 영화인을 꿈꾸는 전북지역 고등학생 36명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이론에서부터 시나리오·촬영·연기·편집 등 영화 제작과정 전반을 체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첫째 날인 22일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뒤 단편영화제작 기획 및 시나리오·촬영·연기·편집 등에 대한 집중강의를 들었다. '개발·사전 준비·제작 후반 작업·배급과 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제작 5단계, 3막 구조 시나리오 쓰기, 이미지 시각화, 카메라 원리와 화면구성, 즉흥 연기 발표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높였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본격적인 촬영 작업과 편집 작업 과정을 거친다. 캠프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편집을 마무리해 영화를 완성하고, 모뎀별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영상교육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의 영화제작 과정을 배우는 것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창작 의욕을 마음껏 분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면서 "캠프기간에 모뎀별로 제작된 단편작품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전북청소년영화제 기간에 공모로 수상된 작품들과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오늘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정미정 개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정미정 개인전'이 열린다. 정미정은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9번째 개인전이다. 이외에도 전북미술단체 아트워크전, 영호남교류 여성3인전, 익산미술협회전 등 여러 단체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화작가로도 변신하여 펭귄을 주제로 한 동화화랑 캐릭터 기획전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이번 전시는 꽃의 생명력과 아기 펭귄의 모험이라는 각각 다른 두 가지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꽃의 생명력'은 자연의 본질에 대한 감성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다. 창작을 통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질서를 드러내고자 했으며, 또한 자연과 꽃의 생명력에 대한 미적 표현의 가치를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는 내면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이번 작품은 자연의 생명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꽃을 통해 내면으로 향하는 인간 자의식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는 수수한 원색이 활용되었고 풍부한 회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

연과 동화되어 삶을 영위하는 인간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였으며, 또한 생명력이 있는 만개한 꽃의 이미지는 평면 위에서 단순화되어 유동적인 자유로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느낌 즉 '희망'과 '기쁨'의 이미지로 변화시켜 생동적이면서 유동적인 자연을 표현하고자 했다.

'아기 펭귄의 모험' 그림전이며, 주 내용은 앞에서 깨어난 아기 펭귄이 먹이를 찾으러 나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아기 펭귄이 위험한 순간마다 남극에 사는 동물들이 해성처럼 나타나 아기 펭귄을 도와주며 험난한 위험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남극에 사는 동물들의 재미있는 동세(動勢)를 캔버스에 아크릴로 표현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흥미진진한 환경만화동화이며, 책으로도 출간했다.

정미정은 "청정지역 남극의 바다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남극의 동물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번 그림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정미정 작가 - 목단화



정미정 작가 - 아기 펭귄의 모험

진안군, 내일 빛과 소리를 함께 만나는 신기한 과학음악 콘서트 공연

진안군은 7월 문화기획 공연으로 IT국악밴드 카타의 신기한 과학음악 콘서트'를 내일, 오후 7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국악기와 디지털악기가 만나 신비하고 새로운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을 진행하는 IT국악밴드 카타는 디지털 악기와 어쿠스틱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타악 그룹으로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을 선보임으로써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추구한다.

빛과 소리를 함께 만나는 LED바디드럼과 LED북 등을 사용하는데 국악기에 LED조명을 달아 국악 연주를 들으면서 강렬하게 비추는 빛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신디사이저를 변형한 악기 이지신스는 특정 공간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자는 춤을 추듯 동작을 연출할 수 있어 카타의 음악 공연은 퍼포먼스로 변형되어 듣는 음악보다 보는 음악으로 더 끌리는 공연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악을 친숙하게 접하고 소리



의 시각화 기술로 빛을 통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음악 감성이 충만해지는 시원한 문화향유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옛 잠종장에 완주군의 음악동아리를 위한 연습실 공간이 생겼다.

완주군 음악동아리 "연습공간 생겼어요"

옛 잠종장에 합주·개별연습실 마련... 회원 60여명 활동

완주군의 음악동아리를 위한 연습실 공간이 생겼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새롭게 조성된 음악동아리 연습실은 옛 잠종장에 93㎡의 공간으로 방음시설과 합주연습실, 개별연습실이 갖춰졌다. 현재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동아리는 색소폰,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모임이 있으며 활동인원만 60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이들 동아리 회원들은 마땅한 연습공간은 물론 방음시설과 개별연습실이 없어 회의실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연습을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에서 동호회 활성화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후생복지 비용을 투입, 3개월에 걸쳐 연습 공간을 구축했다.

연습공간이 마련되면서 회원들은 더욱 연습에 매진해 그동안 이어왔던 봉사활동에도 더욱 활발히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색소폰 동아리 회장인 김완태 건축과장은 "음악을 하면서 복지시설, 문화현장 등을 찾아 공연을 해왔는데 연습실 구축으로 더욱 힘이 난다"며 "개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직원, 주민들에게 문화적 편을 줄 수 있는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